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유년부

## 유년부 약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와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유년부 교육 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God's Time -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추천도서

추천도서  
그 달의 주제에 맞는 읽기 좋은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 contents

❁ 7월 교육 내용 .....	04
❁ 7월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07
어린이 QT God's Time .....	08
❁ 7월 둘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19
어린이 QT God's Time .....	20
❁ 7월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	30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31
어린이 QT God's Time .....	32
❁ 7월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	42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43
어린이 QT God's Time .....	44
❁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	52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	53
❁ 위드 포토 .....	54
❁ 7월 추천도서 .....	56
❁ 7월 위드스티커 .....	57
❁ 7월 교육활동지 .....	59





## 암송 구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 사도행전 28:31 -

### ♥첫째주♥

“예수님을 만난 사울”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15)  
\*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 ♥둘째주♥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도행전 14:15)  
\*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 ♥셋째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한 바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25)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려요.

### ♥넷째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바울”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사도행전 19:11)  
\*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요.

## 실천 내용

1.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2.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삶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해 보기



7월 첫째주  
2020년 7월 5일 ~ 11일





## 예수님을 만난 사울

첫째주

♥ 주제 : 바울

♥ 암송구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15

♥ 오늘의 주제 : 예수님을 만난 사울 ▷사도행전 9:1~22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 ★ 말씀 나눔

① 사울은 어디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3절)

○○○

②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을 도와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10절)

○○○○

③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나요?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과

○○○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이라

★ 교육활동 - “변화된 모습 그리기” 준비물: 나무젓가락, 색지 2장, 필기도구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전 나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나의 모습을 색지에 그려서 서로 소개해보세요.

# 가족과 함께하는

# Sweet Time



첫째주

♥ 주제 : 바울

♥ 암송구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15

♥ 오늘의 포인트 :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예수님을 만난 사울 ▷사도행전 9:1~22

사울은 유대교의 율법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알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고, 그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어느 날, 사울이 다메섹이란 곳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그를 비추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 누구신지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4-5절, 새번역)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이후 사울은 변화되었어요. 더 이상 율법으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못살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심지어 이전에 제일 싫어했던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지요.

우리 친구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Q 1 예수님을 만난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나와 우리 가정을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요.



토론하기

Pray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 GOD'S TIME 1 첫째주

날짜: 2020 .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출애굽기 1:1-1:22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5. 한편 이집트 왕은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16.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17.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 두었다.
18.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일을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 두었느냐?"
19.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 버립니다."
20.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21.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22.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 두어라."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산파**: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던 사람



with  
관찰

1.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무엇을 명령했나요? (16절)

“아이가   이거든 죽여라.”

2. 산파들은 왜 이집트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나요? (17절)

“   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with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때에 애굽에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안식처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자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억누르기 위해 애굽 정부에 많은 돈을 내게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그래서 애굽 왕은 나쁜 방법을 생각해 냈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도와주고 아이를 받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산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는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나 산파들은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with  
결심

그때 당시 애굽의 왕은 아주 두려운 존재였어요. 힘이 정말 센 사람이었던요. 그렇지만 산파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라고 명령할 때가 있어요. 다른 친구를 따돌리자고 요구하거나, 친구들을 괴롭히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주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게요.

나의 기도 :

---

---

# GOD'S TIME 2

## 첫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출애굽기 2:1-10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2.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 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3.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4. 그 아이의 누이가 말썽이어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 보고 있었다.
5.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 오게 하였다.
6. 열어 보니, 거기에 남자 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붙잡고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7. 그 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겐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8.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 왔다.
9.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 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샅을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10.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유모 : 어머니를 대신하여  
아이를 길러주는 사람.

샅 : 일을 한 대가로 주는  
돈.



with  
관찰

1. 레위 가문의 여자는 모세를 어디에 숨겼나요? (3절)

상자에 담아

갈대 사이에 숨겼다.

2. 상자를 보고 모세를 꺼내어 기르게 된 사람은 누구였나요? (5절)

딸

with  
생각

모세의 부모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애굽 왕의 핍박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은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달간 모세를 집에 숨겨 길렀어요. 어느새 모세는 무럭무럭 자라 더 이상 집 안에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강가에 흘려보냈어요. 이러한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였고, 인타깝게 여겨 그를 키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친어머니는 모세의 유모가 되었어요.

with  
결심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모세의 경우에도 그랬지요. 하나님께서는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는 모세를 애굽 공주가 발견하게 하셔서, 친어머니 밑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친구들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요.

나의 기도 :

---

---

---

# GOD'S TIME 3 첫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출애굽기 2:11-25 “언제나 인도하시는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1.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 때에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12.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 버렸다.
13.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14.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오?"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15.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 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16.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17.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 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 떼에게 물을 먹였다.
18.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19.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 떼에게 먹였습니다."
20.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21. 르우엘은, 모세가 가까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탄로나다** : 숨긴 일이 드러  
나다

with  
관찰

1.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어떻게 했나요? (12절)

다.

2.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를 피해 어디로 도망갔나요? (15절)

땅으로 도망쳤다.

with  
생각

모세는 왕궁에서 애굽의 공주에게 길러졌지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보고 화가나 그를 죽이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애굽의 왕은 모세를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도망간 모세는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인연이 닿아 결혼하게 되었어요.

with  
결심

모세는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참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왕자로 살았던 모세는 하루아침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그는 망연자실하여 앉아 있었지만,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요.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

---

# GOD'S TIME 4 첫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출애굽기 3:1-22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 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 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2.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3.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쩌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 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4.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5.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6.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뵈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7.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8.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셨나요? (6절)

의 하나님,   의 하나님,  
  의 하나님

2.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셨나요? (7절)

백성들의 고난을 안다고 하셨다.

with  
생각

모세는 40년을 애굽 왕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았고, 40년은 미디안에서 목자로 살았어요. 그는 단순히 왕자로 행복하게 살다가 목자로 고통스럽게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었어요.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그동안 훈련 시키셨어요. 드디어,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날이 왔어요.

with  
결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당했어요. 모세도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땅에 있었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순간도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또한 잊지 않으세요. 늘 지켜보고 계세요. 그것을 기억하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인내하는 우리가 될게요.  
 나의 기도 :

---



---



---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 사도행전 28:31 -







7월 둘째주  
2020년 7월 12일~18일



# Memory Time



##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둘째주

♥ 주제 : 바울

♥ 암송구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도행전 14:15

♥ 오늘의 주제 :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사도행전 14:8~18

♥ 오늘의 포인트 :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 ★ 말씀 나눔

1.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 제우스 신으로 알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도시는 어디인가요? (8절)



2. 그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무엇이라 말했나요? 말씀을 읽고 빈 칸을 채워보세요. (15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 ★ 교육활동 -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준비물: 위드지, 필기도구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나의 ‘우상’임을 배웠어요. 나의 마음에는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생각하고 적어 보세요. 이제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해요.

# 가족과 함께하는

# Sweet Time



둘째주

♥ 주제 : 바울

♥ **암송구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도행전 14:15

♥ **오늘의 포인트** :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사도행전 14:8~18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던 중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들은 그 곳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은 그 사람에게 치유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당신 발로 똑바로 서서 일어서시오!”라고 외쳤고,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다가왔어요. 루스드라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을 섬기는 도시였는데, 기적을 베푸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그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숭배하려고 했던 것이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괴로워하며 외쳤어요.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방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바울은 자신들의 능력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말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는 헛된 것이며,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담대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를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 혹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과 생각 속에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우상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전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토론하기

Q 1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으면 고백해 보세요.

Pray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인도해주세요.

# GOD'S TIME 1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출애굽기 4:1-17 “내가 돕겠다”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0.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11.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12. 그러니 가거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13.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14.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 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15.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네가 할 말을 그에게 알려주어라. 네가 말을 할 때에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16.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 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17.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무디다: 느끼고 깨닫는  
힘이나 표현하는 힘이 부  
족하고 둔하다



with  
관찰

1. 바로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뭐라고 대답했나요? (10절)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가 없는 사람  
 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이 둔하고 혀가  
  사람입니다.”

2. 모세의 대답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2절)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주겠다.”

with  
생각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자신을 말을 잘 못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도와주겠다고 약속 하셨지요. 그럼에도 모세는 이번엔 자신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때 모세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형인 아론을 붙여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with  
결심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두 번이나 거절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말을 잘 하지 못한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무책임하게 ‘내가 알아서 하거라!’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지요. 우리와 함께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항상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

# GOD'S TIME 2 둘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출애굽기 4:18-31 “아론이 함께하다”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27.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 하였다.
28.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29.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30.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 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문안**: 안부를 여쭙. 또는  
그런 인사

with  
관찰

1. 하나님은 아론에게 어디에 가서 모세를 만나라 하셨나요? (27절)

주님께서 아론에게,   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의  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2.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나요?  
(30절)

아

with  
생각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은 말을 잘 못한다는 모세의 말에 형인 아론을 함께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론에게 모세를 만나게 하시고 이집트로 돌아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요.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계셨고 살피실 것이라는 말씀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어요.

with  
결심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잘 할 수는 없어요.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있게 말 하는 것을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모세를 도와줄 아론을 보내셨어요. 바울에게 실라를 모세에게 아론을 함께하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 사람들을 보내 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에 순종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실 것을 믿고 순종할래요!  
나의 기도 :

---

---

# GOD'S TIME 3

##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출애굽기 5:1-23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4. 바로의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을 때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 하지 못하느냐?" 하고 다그쳤다.
  15.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16. 저희 종들은 짚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17.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 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18.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 내야 한다."
  19.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곤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20.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21.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 준 셈이요."
-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호소: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남에게 간곡히 알림

수량: 물건의 양

곤경: 어려운 형편이나 처지





with  
관찰

1. 자신들을 왜 괴롭게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바로는 뭐라고 대답했나요? (17절)

“... 너희가  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를 드리러  
가게 해 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2.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21절)

“... 당신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하고 있소...”

with  
생각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찾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일을 힘들게 시키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가 갑자기 힘든 일을 시키자 이유를 물어보았고, 바로는 너희가 일이 편하니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지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신들 때문이라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with  
결심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바로가 힘든 일을 시키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잠깐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구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집트의 손에서 구해 주셨지요. 이스라엘 자손처럼 작은 고난에 흔들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

# GOD'S TIME 4 둘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출애굽기 6:1-13 “전도해야 하는 이유!”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0.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1. "너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12.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들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13. 주님께서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습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나요? (11절)

“너는 이집트의 왕   에게 가서,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2.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라 하셨나요? (13절)

자손,    왕

with  
생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풀어 주도록 요구했어요. 하지만 바로는 풀어주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욱 힘든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라고 명령하셨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며 계속 살아갈 수 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의 이유이기도 해요. 죄의 종노릇하며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이지요. 죄에 빠져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전도를 해야 해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나의 기도 :

---

---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 사도행전 28:31 -





7월 셋째주  
2020년 7월 19일~25일



# Memory Time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한 바울

셋째주

♥ 주제 : 바울

♥ 암송구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25

♥ 오늘의 주제 :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한 바울 ▷사도행전 16:16~40

♥ 오늘의 포인트 :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려요.

## ★ 말씀 나눔

① 귀신들려 점을 치는 여종의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갇힌 사람은 누구인가요? (19절)



②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은 한 밤중에 무엇을 했나요?(25절)



## ★ 교육활동 - “하나님을 찬양해요(마라카스 만들기)”

마라카스를 만들어 흔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려요!



# 가족과 함께하는

# Sweet Time



♥ 주제 : 바울

♥ 암송구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25

♥ 오늘의 포인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려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한 바울 ▷사도행전 16:16~40

바울과 실라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빌립보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한 여종과 마주쳤는데,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여 주는 점쟁이였어요. 그 여자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하고 소리치며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그 여자가 며칠을 그렇게 하자, 바울은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바울은 돌아서서 그 여자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명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그러자 그 명령대로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여자의 주인은 자신의 돈벌이가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어요. 고발당한 바울과 실라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심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날 밤,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하고 찬송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찬송 소리는 감옥에 있는 간수들과 죄수들의 귀에도 들릴 만큼 큰 소리였어요. 그 때 난데 없이 큰 지진이 일어나며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죄수들을 묶어 놓은 것들도 다 풀렸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바울과 실라를 살려주신 것이었지요.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 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하고 찬송을 드리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예배자)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Q 1 우리가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Pray 하나님!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기쁠 때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드리는 가족이 되게 하주세요.

# GOD'S TIME 1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출애굽기 6:14-27 “하나님의 계획”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4. 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 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인데, 이들이 르우벤 가문이다.
15.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자가 낳은 아들 사울인데, 이들이 시므온 가문이다.
16.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게르손과 고탕과 므라리인데, 레위는 백삼십칠 년을 살았다.
17. 게르손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립니와 시므이이다.
18. 고탕의 아들들은 아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인데, 고탕은 백삼십삼 년을 살았다.
19.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세대별로 본 레위 가문이다.
20. 아르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르람은 백삼십칠 년을 살았다.  
 (생략)
26.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이들 아론과 모세이고,
27.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 달라고 말한 이들도, 바로 이들 모세와 아론이다.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Q. 단어사전  
 편성 : 조직 등을 짜서 이름
- 분부 :윗사람이 아랫사람  
 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내림





with  
관찰

1. 14-25절은 누구의 조상을 나열하고 있나요? (14절)

□□, □□

2. 아론과 모세에게 어떤 분부를 내렸다고 하셨나요? (26절)

“□□□□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 땅에서 □□□□ 하여 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

with  
생각

본문은 모세와 아론의 조상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맏아들인 르우벤을 시작으로, 레위, 게르손, 고핫, 므라리 등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적혀 있어요.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낼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with  
결심

모세와 아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일을 맡았어요. 그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단순하고 평범한 상황이지만, 이런 특별함 없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나의 삶에 특별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지나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하던, 평범하던 모든 상황을 통해 일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

---

# GOD'S TIME 2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출애굽기 6:28-7:6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8.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이다.
29.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이집트의 임금 바로에게 전하여라" 하셨다.
30.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 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네가 바로에게 하나님 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2.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여라.
3.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4.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5.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6.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대언자**: 남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

**표징**: 겉으로 드러나는 상징

with  
관찰

1. 자신은 입이 둔하여 말할 줄 모른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주시겠다고 하였나요? (1절)

“... 너의 형   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2. 하나님께서 직접 이집트를 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낼 때 이집트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하겠다고 하셨나요? (5절)

“... 내가   입을 알게 될 것이다.”

with  
생각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은 능력이 없다며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아론을 보내 주셔서 모세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대한 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사람이 일을 해결 하는 것 같지만 일을 해결하기 위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

---

---

# GOD'S TIME 3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출애굽기 7:7-25 “내 마음의 모양”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15. 그러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거라. 그가 물가로 갈 것이니,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라.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16.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17.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18.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19.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와 늪과 그 밖에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 땅 모든 곳에 피가 필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에까지도 피가 필 것이다."
20.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21.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괴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악취: 나쁜 냄새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찾아가서 지팡이로 무엇을 하라고 하였나요? (17절)

“... 이 지팡이로   을 치면, 이   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2. 강이 피로 변하자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21절)

“...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없게 되었다. ...”

with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 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로 인해 강에 있던 물고기가 죽고 심한 악취가 났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지게 된 것이예요.

with  
결심

바로와 같이 마음에 완악함,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세요. 나쁜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되심을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채우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내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

---

---

# GOD'S TIME 4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 . .



with  
말씀

출애굽기 8:1-19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2. 네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벌하겠다.  
(생략)
5.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들고 강과 운하와 늪 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6.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7. 그러나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8. 그 때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부탁하였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 주겠다."
9.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 이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에서 물러가서, 오로지 강에서만 살게 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임금님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10. 바로가 대답하였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11. 이제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물러가고, 오직 강에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12.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물러나왔다. 모세가, 주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를 없애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니,
13. 주님께서 모세가 간구한 대로 들어 주셔서, 집과 들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운하: 배의 운항을 위해  
육지에 파 놓은 물길

술객: 마술사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요? (2절)

2.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겠다며 개구리를 거두어 달라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나요? (13절)

“... 집과 뜰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

with  
생각

바로는 첫 번째 재앙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두 번째 재앙을 내리세요. 온 나라에 개구리가 돌아다니게 하셨어요. 이를 본 바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겠다고, 주님께 제사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빌었어요.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거두어주셨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내리셨던 벌을 다시 거두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

---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 사도행전 28:31 -







7월 넷째주  
2020년 7월 26일 ~ 8월 1일



# Memory Time



##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바울

넷째주

♥ 주제 : 바울

♥ 암송구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사도행전 19:11

♥ 오늘의 주제 :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바울 ▷사도행전 19:11-20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요.

### ★ 말씀 나눔

① 누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나요? (11절)



②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불사른 책값은 계산하면 얼마나 되었나요? (19절)



### ★ 교육활동 - “나만의 능력액자 만들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인지 생각해요.

능력액자를 만들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마음껏 뽐내보아요.

# 가족과 함께하는

# Sweet Time



♥ 주제 : 바울

♥ 암송구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사도행전 19:11

♥ 오늘의 포인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바울 ▷사도행전 19:11-20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기까지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마술하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처럼 악한 영들을 쫓아 내려고 따라했어요. 대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도 바울을 따라했어요. 그러나 악한 영들은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힘으로 놀러버렸고, 그들은 도망치고 말았어요.

바울이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악한 영이 들린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예요. 마술사들과 같이 자기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화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서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각자가 가진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해요.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Q 1 하나님께서 우리가족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셨나요?

Pray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해주세요.



with  
말씀

출애굽기 8:20-32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0.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갈 것이다. 그 때에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21. 네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22. 그러나 그 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네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23.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여라."
24.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그 신하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 들었고,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25.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26. 모세가 말하였다. (생략)
27.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길을 나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28.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29. 모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임금님 앞에서 물러가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리 떼가 바로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임금님이 우리를 속이고 백성을 보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니,
31.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파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모두 떠나서 한 마리도 남아 있지 않게 하셨다.
32.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신 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엇을 보내겠다고 하셨나요?(20-21절)

2.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곳에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 곳은 어디인가요?(22절)

with  
생각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네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네 신하들과 네 백성과 네 궁에 파리 떼를 풀어 놓겠다. 이 표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20-21절) 파리 떼 마리만 주위에 있어도 신경이 쓰이고 귀찮아 지는데, 하나님께서는 파리 떼를 온 집과 땅 전체에 가득 채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파리 떼가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농작물에도 영향을 주어 이집트 온 땅이 파리 떼로 인해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24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바로의 백성들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분이심을 나타내보이시기 위함이었지요.

with  
결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은 지리적으로 이집트 밖에 있는 곳이 아니라, 이집트에 속해 있던 곳이었어요. 나일 삼각주에 위치했던 고센 땅은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각종 재앙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바로의 백성들과 구별하여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을 구별하신 이유는 이집트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에게도 나타내보이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한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도 살아계신 분임을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과부터 구별하여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 GOD'S TIME 2

## 넷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출애굽기 9:1-35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3.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14.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겠다.
15.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16.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 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려고, 내가 너를 남겨 두었다.
17. 그런데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내 보내지 않는다.
18.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것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에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19.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 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20.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21.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 중에, 이집트에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18절)  
①개구리 ②이 ③파리 ④우박 ⑤메뚜기

2. 하나님께서 바로를 지금까지 남겨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16절)

“너에게 나의   을 보여 주어,    에  
나의   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 두었다.”

with  
생각

이집트에 파리가 가득한 재앙 이후, 돌림병으로 가축이 죽게 되는 재앙, 악한 종기로  
인해 사람과 짐승이 괴로워하게 되는 재앙이 이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  
시며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집트에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본적이 없는 큰  
우박을 내리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이에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살려두시고 이집트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를 통해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6번에 걸쳐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바로는 더욱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  
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에게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 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고집을 부리는 바로를 통해서도 일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세요. 비록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는 바로  
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제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저를 통해 복음이 전파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 GOD'S TIME 3

## 넷째주

날짜 : 2020.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출애굽기 10:1-29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3.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4. 네가 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나는 내일 너의 영토 안으로 메뚜기 떼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5.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 있는 것들을 먹어 치우되, 들에서 자라는 나무들까지 모두 먹어 치울 것이다.
6. 너의 궁궐과 너의 모든 신하의 집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조상이 이 땅 위에 살기 시작한 때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전혀 못 본 일이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발길을 돌려 바로에게서 나왔다.
7.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8.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러 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 누구냐?"
9.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 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10.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11.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다음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한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세요.(3절)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하게 굴려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하게 하여라.”

2.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기 위해 누구 누구를 데리고 가야한다고 했나요?(9절)

,   ,   ,  
 ,  ,

with  
생각

바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7번의 이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지요.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언제까지 굴복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땅으로 메뚜기 떼를 들여보내겠다.”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에게 “저 사람들을 내보내어 자기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 이집트가 다 죽어 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 할 정도였어요.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서 이야기 했어요. “그렇다면, 어서 가거라, 가서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너희와 함께 갈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이야기 하자, 모세는 어린 아이와 노인, 아들, 딸,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했어요.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주를 할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남자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했어요.

with  
결심

모세와 아론은 절가다가오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남자장정들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라고 말했어요. 바로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신 말씀을 듣는 것 같아 보이지만, 완벽한 순종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마치,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회개했지만, 행동은 변화되지 않고 같은 죄를 짓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말씀에 일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순종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 GOD'S TIME 4 넷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출애굽기 11:1-10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2.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불이와 금불이를 요구하게 하여라."
3.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4.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5.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만아들을 비롯하여, 멧돌질하는 몸종의 만아들과 모든 짐승의 만배가 다 죽을 것이다.
6.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7.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짓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짓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8.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 주시오' 하고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9.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더 많은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10.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만배: 짐승이 새끼를 낳거나 까는 첫째 번, 또는 그 새끼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에게 내린 10번째 재앙은 무엇인가요?  
(5절)

“이집트 땅에 있는     이 모두  
죽을 것이다.”

2.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바로는 어떻게 반응했나요?(10절)

- 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
- ② 모세와 아론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 ③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 ④ 10번째 재앙에서 자신의 가족들만은 구해달라고 했다.

with  
생각

하나님께서서는 9가지의 재앙으로 바로와 이집트를 심판하셨지만,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마지막으로 내리실 재앙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만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바로의 만아들을 비롯하여, 멧돌을 가는 여종의 만아들과 짐승의 처음 태어난 새끼 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에도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전보다 더 완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와 처음 난 것은 집과 가족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집트 전체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장자와 처음 난 것의 죽음은 집안의 미래와 계획이 모두 무너지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7절) 이와 같이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갈 수 있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생명과 삶의 계획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 Morning Time

## 가족과 함께하는

1.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다음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3. 말씀을 다 읽은 뒤, 친구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이야기해주세요.



### 말씀 <시편 23편, 새번역>

1.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라.
2.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3.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4.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5.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칫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6.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야), 잘 잤니?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란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이)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두려움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길 바라. 그럼 같이 기도할까?

“○○(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마무리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요. 살면서 다가오는 두려움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가족과 함께하는



1.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2.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3. 자리에 누워서, 친구에게 말씀을 읽어주세요.
4. 친구를 꼭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 찬양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가득하기를 축복해

사랑하는 ○○(아), 오늘 ○○(이)의 하루가 어땠는지 궁금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꼈던 일이 있지?

엄마(아빠)가 들어줄게 얘기해봐. (들은 후)

○○(아아)! 엄마(아빠)한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를 정말 사랑하셔서 찬양의 가사처럼 ○○(이)를 위해서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그 아들까지 주셨단다. 그 사랑에 항상 감사하고 그 사랑을 항상 느낄 수 있는 ○○(이)가 되기를 축복한다! 우리 그럼 자기 전에 함께 기도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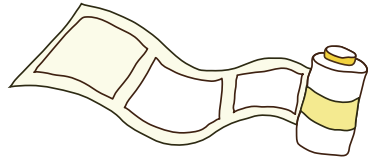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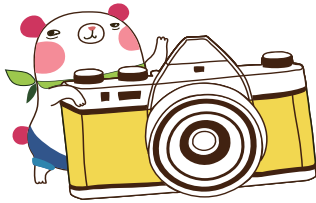
“○○(이)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아들까지 저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이)가 오늘도 하루를 기도와 감사로 마무리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해요.

저희들이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오늘 밤도 평안한 마음으로 푹 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일 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루를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유니스트 PHOTO



유년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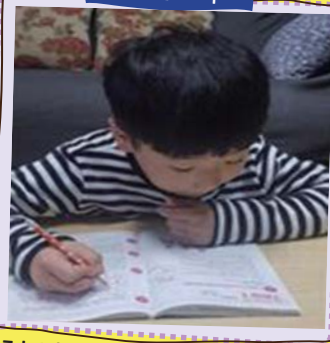
찬양 2-1 김유민

유년1부



찬양 2-1 성라임

유년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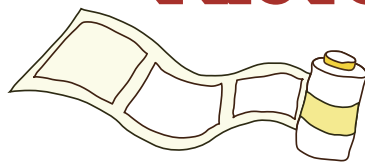
찬양 2-2 문채민

유년2부



2-2 김혜린

# 유년부 PH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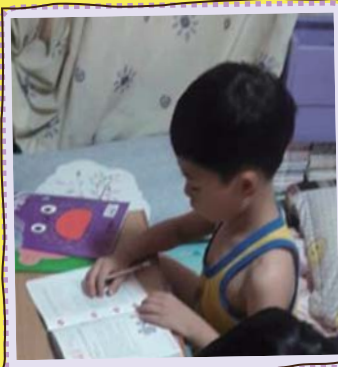


유년2부



2-2 박주흠

유년2부



2-6 김하준

유년2부



2-6 조하은

유년2부



2-10 황예주





## 7월

제목 : 숨바꼭질 바이블  
글 / 피터마틴, 그림 / 렌 엡스타인  
옮긴이 / 하수희  
출판사 / 주니어 아가페



흥미롭고 유익한 성경 이야기 속 그림 찾기!

노아의 방주부터 바울의 전도여행까지, 열두 가지 성경 명장면 속에서 제시된 그림을 찾아보세요!

어릴 적 그림 찾기 책을 가지고 싶다고 부모님께 조르던 기억이 납니다. 제 책장 한 부분은 그림찾기 책으로 가득했더랬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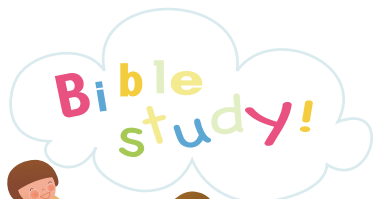
그림 찾기 자체만으로도 흥미로운 데, 우리 친구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게 된다면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까요?

글자로만 보고 이해하던 성경의 내용들을 커다란 그림을 통해 보면서 친구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종이가 아닌 코팅 용지로 되어 화이트보드용 마카로 동그라미 표시하면 물티슈로 지울 수 있어 한번 쓰고 버리지 않고 재활용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7월 STICKER



유년( )부, ( )학년, ( )반

이름 :



	QT	QT	QT	QT	말씀 암송	모범
1주						
2주						
3주						
4주						
5주						





7월 둘째 주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

---

---

---

---

---

---

---

---

---

---

---

---

---

---

---





7월 넷째 주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능력액자 만들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 사도행전 28:31 -



